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기업협력과 진중욱 과장(044-203-4230), 이창원 사무관(4234)

주형환 산업부 장관, “중소기업이 수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정책 역량 집중”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1월 19일(화), 첫 번째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시간/장소 : '16. 1. 19(화) 15:30 ~ 17:30 /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
- 참석자 (45명)
 - (정부) 산업부 장관, 중소기업청장, 산업부 산업정책실장, 담당 국장 등
 - (중소기업 대표) : 중기중앙회장, 중기중앙회 회장단,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
 - (유관기관) : 종진공이사장, 기업은행장, KOTRA부사장, 무역보험공사 부사장, 수출입은행부행장

□ 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성장동력 창출, 대·중소기업 상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

(1)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하고, 수출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수단을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

- 최근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중소기업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, 경제공동위 및 수출상담회 개최,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중소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

(2)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(이하 ICT) 융복합 산업, 첨단 신소재, 고급 소비재,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연구개발(R&D)·인력·판로지원 등 총력 지원

- ICT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대표모델을 구축하여,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

(3) 대·중소기업이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키고,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이바지

□ 참여 중소기업인들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예산 확대, 한·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에 따른 주얼리 산업 지원,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.

○ 이에 대해 주 장관은

- 산업부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통합·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
-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간('15.8~'16.7월) 연장을 적극 검토
- 'FTA취약분야 전용자금'을 활용하여 주얼리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힘

* 610억 원(용자, '16년 신설), 전기·전자, 섬유, 생활용품, 비금속광물, 일반기계, 제약 등 6개 분야 중점지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이창원 사무관 (☎ 044-203-42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소 속	직 책	성 명
중소기업중앙회 [24]	중소기업중앙회	회 장	박성택
	중소기업중앙회	상근부회장	송재희
	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	이사장	이동형
	프라스틱연합회	회 장	조봉현
	인쇄정보산업연합회	회 장	고수곤
	낙화생가공업조합	이사장	이홍우
	수퍼마켓연합회	회 장	강갑봉
	방송통신산업조합	이사장	주대철
	레미콘연합회	회 장	서상무
	아스콘연합회	회 장	이민형
	산업용재협회	회 장	유재근
	자동제어조합	이사장	최전남
	가구산업연합회	회 장	김계원
	정기간행물조합	이사장	이창의
	서울경인지류코팅조합	이사장	노기철
	미용산업협회	회 장	김덕성
	경기도인쇄정보조합	이사장	이완표
	귀금속가공업연합회	회 장	이황재
	문정동로테오상점가조합	이사장	이종덕
	고양시수퍼마켓조합	이사장	임원배
	경기북부자동차정비조합	이사장	주인수
	이벤트산업조합	이사장	엄상용
	석재조합	이사장	임권택
중소기업 단체 [4]	금속열처리조합	이사장	주보원
	벤처기업협회	회 장	정 준
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회 장	이규대
	한국여성벤처협회	회 장	이 영
수출기업 [3]	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	회 장	조동민
	넥스페어	대 표	김유림
	(주)일광메탈포밍	대표이사	윤석봉
유 관 기 관 [5]	(주)오토헌	대표이사	이연배
	중소기업진흥공단	이사장	임재운
	기업은행	은행장	권선주
	KOTRA	부사장	함정오
	한국무역보험공사	부사장	조남용
	수출입은행	부행장	문준식

《 간담회 개최 배경 》

☐ 취임 후 첫 기관방문으로 어제 신년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어 뜻 깊게 생각

☐ 취임인사를 드리고,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

《 최근 경제상황 》

☐ 최근 대내외 경제현실이 엄중한 상황

○ 전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
일부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

○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융복합화, 사업영역 파괴 등을 통해
신산업을 선점해 나가고 후발 경쟁국은 우리를 빠르게 추격

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
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

《 중소기업 정책방향 》

①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

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수출 회복이 중요

☐ 정부는 수출 시장, 품목, 주체, 방식,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
하여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타개해나갈 계획

○ FTA, 정상외교 성과 등을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과 인도,
이란,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

- 서비스, 기술, 문화, 농식품 등 기존 주력품목 외에 다양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,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수출도 활성화
- 특히, 수출 저변을 대기업 중심에서 **중소·벤처기업으로 확대** 하여 우리 수출이 **대외 여건 변화에 강한 체질**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
-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두려움 없이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,
 - 전시회 참가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3,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 소과정을 밀착 지원
 - 중소기업 정책자금 3.5조원과 무역금융 2조원을 지원하고,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
- 이미 수출전선에 뛰어든 중소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
 -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&D 과제에 6,570억원을 지원하고, 해외 M&A 자금을 저리로 지원
 -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
- 지난 일요일(1.17일) 이란 경제 제재가 전면 해제되어 중소기업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 - 경제공동위를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, 무역금융 확대,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이란 진출을 적극 지원

②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

- 박희장님도 어제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음
- 정부도 어제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,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
 -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·집중하여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R&D·인력·판로지원 등에 총력 지원
 - 아울러, 중소기업이 ICT 융복합 산업, 첨단 신소재, 고급 소비재,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
 - 특히, 제품기획, 생산, 유통·물류 전과정에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의 대표모델을 구축하고,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

③ 대·중소기업 상생 촉진

- 이러한 모든 노력도 우리 산업구조를 비추어 볼 때, 대·중소기업이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가 정착되어야 성과 실현이 가능
 -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성장 파트너로서 존중하면서 생산성 향상, 연구개발, 인력개발 등에 지원하는 한편,
 - 협력기업이 전속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
 -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대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

- 정부는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전반에 정착되고, 2·3차 이하 협력기업으로 확대되도록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시스템* 확산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

* 매출채권을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대금결제시스템 ('15년: 216개 대기업 및 72,329개 협력사 참여, 24.6조원 발행)

- 특히,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

《 당부말씀 》

- 향후 30년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회로 활용한 국가에 의해 좌우
 -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고비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
 - 지금의 이 시기도,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
- 어제 개최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대통령께서 역대정부 최초로 참석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의지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
- 우리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,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나서주길 희망
- 산업부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앞장